

大韓建築學會 誌

學術研究振興에 力點

分科委 活動 및 會員利益增進에 努力



成 性 權 會長

國力の 長足の 成長과 함께 우리 學會도 그間 많은 發展을 하였읍니다. 歷代 會長의 努力으로 이제는 財政的으로 自體運營의 展望도 보이고 會員의 數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創立 30周年 記念行事를 盛大히 舉行하였읍니다. 分科委員長으로서의 活動과 副會長 4年의 奉仕로 今般 無力하나마 本人이 會長으로 學會會務를 돌보게 되어 새삼 짐이 무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會의 目的은 어느 學會나 마찬가지로 믿습시다만 學術研究를 振興하며 國家 社會에 寄與하고 會員의 利益을 增進시키는 것이 우리 學會에서도 主된 目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學會의 年輪이 비록 30을 넘었읍니다만 그間 會員들의 努力으로 無에서 有를 만드는 일의 難關이 많아 위의 目的中에서 學術研究 振興이 있어 列國 水準에 미치지 못하고 會員 利益 增進에 아직 餘地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 앞으로의 主要課題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學術研究 範圍에 있어 지금까지의 成果는 國際的 水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도 近間에 있어 그 意欲이 漸高되어 가고 있고 方向도 잡혀졌다고 하므로 앞으로는 그 成果를 期待해 볼만하다고 確信 됩니다. 그리고 會員 利益·增進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社會에 進出하여 活動하고 있는 會員들에 대한 會誌 또는 各種 모임을 통한 技術情報의 提供이 더욱 必要하다고 생각 됩니다.

建築學會는 學術研究 振興의 目的으로 今年中

에는 '內部 受入態勢를 더 갖추고 來년에는 外國 關係機關과의 學術 交流를 積極化할 作定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建築技術은 어디까지나 綜合 應用技術인 만큼 될 수 있으면 今年부터는 國內 關係學會와의 學術의 交流를 試圖하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 學會는 위의 目的들을 위하여 最近 會誌編輯委員會를 改編하여 會誌의 本來의 目的에 더욱 符合하도록 努力中에 있고 地方 地部는 今年에는 또 하나 忠南支部의 結成을 推進中에 있으며 各支部活動의 積極化도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各分科委員會 活動에 있어서는 委員數를 在來 보다 많이 늘여서 會員들이 더 많이 學會活動에 參與하도록 하였으며 現在 建築構造 分科委員會에서는 鐵筋混凝土 構造計算規準, 鋼構造計算規準의 作成에 이어 建築基礎設計規準을 作成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國力 伸張의 象徴이 무엇보다도 首都 서울의 高層建物群과 곳곳의 大規模의 工場 建設이라고 할때 이것이 모두 우리나라 建築技術陣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는 點에서 우리 建築技術은 상당한 水準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읍니다만 果然 거기에 우리 古建築의 훌륭한 傳統이 어느 만큼 表現되어 있으며 構造面에서 어느 만큼 經濟性和 安全性이 反映되어 있는 가라는 點에서는 아직 許多한 問題點이 있다고 보겠읍니다. 이點 모두 우리 學會의 課題로서 全會員의 進一步의 努力으로 우리나라 建築文化의 發展에 盡力하여야 되겠읍니다.